<오이지소프트 지승훈 씨의 강연을 듣고>

20130940 장용훈

이번 강연을 듣고 다시한번 IT쪽의 견문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미들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얼굴인식이라는 기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몰랐다. 미들웨어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좁은 범위로는 한 기업에 설치된 다양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근거리통신망 환경, PC환경 및 운영체제의 차이를 메워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즉, 복잡한 이기종(異機種)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환경 간에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요약하자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통신환경 등을 연결하여, 응용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에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아마 나도 미들웨어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Hadoop을 사용하였고, 이때 미들웨어 환경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사실 미들웨어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궁금했다. 설명을 들어보니 아직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이 전체를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설계능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미들웨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나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출시하여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인식의 기술의 경우 사실 개념은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시키고, 이때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모델이 좋고, 어떠한 방식으로 튜닝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 하지만, 오이지 소프트에서는 어떤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 궁금해졌지만 질문을 못한점은 아쉬웠다. 나아가 얼굴인식이라는 과제에서 치팅을**

**문제를 눈의 깜빡임을 고속으로 검출하는 방법**

**-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얼굴의 3차원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법**

**- 입의 움직임을 고속으로 검출하는 방법**

**- 얼굴인식과 음성인식, 성문인식 등을 결합하여 인증합니다.**

**- 성문인식 업체와 제휴 및 구글 등 공개된 음성인식 기술 결합으로 인증 우회를 방지합니다**

**Deep learning 기반으로 취득 영상의 노이즈를 판별함으로써 우회공격을 방지합니다. (데이터 수집 시 90% 정확성)**

**- 현재 기반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며, 다수의 데이터 수집 및 Training 필요. 현재 기술검증 완료. 데이터 수집 및 테스트 중**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왜 아직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던지, 송금을 할 때, 얼굴이 아닌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지,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가 궁금하다. 실제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실의 제약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생각인데 현제 한국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도 풀린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위와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최소 3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기술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적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위와 같은 얼굴인식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고, 이 기술이 성공해야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얼굴인식 기술 같은 새로운 분야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런 4차산업혁명 기반의 기술들의 특징이 아직은 시장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학사의 전공자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 공채를 준비하면서 위와 같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의 경우 최소 석사이상이라는 학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없는 나로써는 너무 아쉬웠다. 물론 현업에서 얼마 만큼의 경력을 쌓으면 도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시장의 폭이 좁은 만큼, 아무래도 더 공부를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부터라도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성숙될 때까지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신기술을 조금씩 적용시켜서 뒤쳐지지 말아야겠다.**